

현대차, 경차시장 공략 드라이브... 노조반발 변수

광주형 일자리 타결

‘경SUV’ 새로운 시장 개척 기대
현대·기아차 노조
“임금하락·일자리 감소 우려”



31일 오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 노조원들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현대차가 국내 경차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다만 현대·기아차 노조의 반발이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차가 이번 신설법인 설립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출하지 못한 경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다. 연봉 35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 주 44시간 근무기준)의 적정임금과 노사상생 생산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광주시 주도 완성차 사업에 참여할 경우 경쟁력 있는 경차의 국내 생산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국내 경차 시장은 16만대 규모로 전체 산업수요의 약 9%(지난 5년 평균)를 점유하고 있는 중요 시장이다. 2012년에는 연간 20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내수 시장의 13%까지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2002년 경차 아

토스가 단종된 이후 국내 경차시장에 신차를 출시하지 못했다. 경차 가격 대비 국내 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차도 여러 번 국내 시장을 위한 경차를 개발하려고 검토했지만 국내공장 생산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안돼 번번히 무산됐다. 현대차는 이번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경SUV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차 시장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SUV로 신차를 개발해 승용차 중심 경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차 수요

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국내 SUV 시장(수입차 제외)은 2012년 25만6923대에서 2018년 51만9886대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전체 산업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2%에서 33.5%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SUV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판매를 시작한 대형 SUV 팔리세이드에 이어 2021년 하반기 경SUV까지 출시해 경쟁에서 대형에 이르는 SUV 풀라인업을 구축, 다양한 SUV에 대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고 신

규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번 광주형 일자리 사업 타결에 대한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발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은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투자협약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 현대·기아차 노조는 이날 하루 확대 간부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후 광주시청 앞에 모여 비상 결의 대회를 연 뒤 광주시청을 향의 방문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업계 평균 임금 하락과 기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노조 등은 광주형 일자리가 사업성이 없고 기존 자동차 업계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며 반대해 왔다. 노조는 긴급공지를 내고 “광주형일자리 잠정합의 발표는 대표적인 ‘정경유착’이 사례로 남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용불안이란 꼬리표로 오직 노동자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노조와 연대해 정부 및 대화사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에 대해 “사회 통합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을 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이혜식 대변인을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노사민정 대화협의 첫 결실을 매우 환영한다”며 “다협과 양보의 자세로 협상을 타결해 낸 모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논평을 전했다. 민주당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4대 운영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창출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일자리로 고용을 늘리고 사용자의 부담을 덜며, 지방정부는 복지 지원으로 노동자 처분 소득을 늘려줄 것”이라며 “지역경제도 살리는 노사민정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 협약 불참에 대해선 “광주형 일자리는 민생경제가 쉽지 않은 시기에 경제의 체질까지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도”라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참여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성훈 기자·석대수 수습기자 ysw@metroseoul.co.kr

막걸리 ‘장 기능 개선’ 효과 과학적 입증

한국식품연구원

‘누룩’ 막걸리, 뷰티르산 생성 율등 연구결과 특허출원·논문투고 완료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연구단 이은정 연구원이 누룩 막걸리의 장 건강 개선 효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전통 발효주인 막걸리가 장 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국내 연구진이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한국식품연구원 전략기술연구본부 이은정 박사과 식품기능연구본부 박호영 박사 연구팀은 메타지놈 분석을 통해 전통누룩으로 제조한 막걸리가 장내 미생물을 조절을 통해 장 건강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입증했다고 31일 밝혔다. 연구팀은 막걸리 장 건강 개선 효능에 대한 가설을 바탕으로 총 60여 종 막걸리에서 단쇄지방산 생성능력을 확인했다. 단쇄지방산은 장내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이 생성하는 물질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를 많이 생성할수록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팀은 시중 유통되고 있는 19종의 생막걸리에서 단쇄지방산 생성 능력이 뛰어난 막걸리를 선별했고, 이중 상위에 해당하는 막걸리를 확인한 결과, 입국이나 효소제를 사용한 막걸리보다 누룩으로 제조한 막걸리에서 단쇄지방산, 특히 뷰티르산 생성 능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식연에서 보유한 전통누룩 46종으로 제조한 누룩 막걸리에서도 뷰티르산 생성 능력이 높은 2종의 막걸리를 선별하고, 단쇄지방산 고생성 누룩 막걸리의 메타지놈(metagenome)을 분석해 뷰티르산 생성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 미생물 1종을 동정했다. 연구팀은 뷰티르산 고생성 누룩 막걸리를 실험동물에 5일간 단기 투여해 장 건강 개선 효능을 알아봤다. 그 결과, 누룩 막걸리 섭취에 의해 기존 장내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균수 등에 변화가 발견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내미생물의 균총 변화는 누룩막걸리 섭취 전 후뿐 아니라 알코올만 투여한 동물과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누룩 막걸리에 의해 장내미생물 균총

이 직접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메타지놈 분석을 통해 밝힌 최초의 연구결과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 대해 특허출원 1건, 논문 투고 1건을 완료했고, 향후 누룩 및 누룩 막걸리를 활용한 전통 발효식품의 우수성 구명 및 이를 응용한 소재 개발의 기초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동준 한식연 원장은 “연구결과를 통해 처음으로 우리 고유 전통주인 막걸리가 장내미생물 균총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며 “앞으로 장기투여 및 인체실험을 통해 막걸리 유래 장 건강 개선 소재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막걸리 중추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대전 소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대전시, 업무협약

근로복지공단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전시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시 소재

의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가 올해 1월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대전시에서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나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

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면 직업훈련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다. 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등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면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文 대통령, 고용·연설·제도 비서관 인사

조성재·오종식·신상엽 임명



조성재 오종식 신상엽 고용노동비서관 연설기획비서관 제도개혁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비서관은 ▲고용노동비서관직에 조성재 현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연설기획비서관직에 오종식 현 정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제도개혁비서관직에 신상엽 현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이다. 오 신임 기획비서관과 신 신임 제도개혁비서관은 승진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신임 고용노동비서관과 오 신임 기획비서관, 신 신임 제도개혁비서관 임명 소식을 알렸다. 조 신임 비서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했고, 한국산업노동학회 편집위원장·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오 신임 비서관은 1970년생으로 제주

출신이다. 그는 고려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했고,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대변인·민주당 전략홍보본부 부분부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신 신임 비서관은 1968년 충남 보령 출신이다. 그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고, 국무총리실 정부비서관·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다. 한편 청와대는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후임을 비롯해 과학기술보좌관, 의전비서관 등 공석으로 남겨진 자리에 대한 인사도 검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유수준 기자 dnt114@

산업부, 경제자유구역별 특화 혁신사업 추진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에 구역별로 특화된 혁신성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 등을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세감면, 규제특례, 입지지원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초점을 투자 유치에서 혁신성장 지원으로 전환해 구역별로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제3차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를 열어 인천에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구역별 혁신성장 사업안을 발표했다.

우선, 인천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실증사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마크로젠을 중심으로 예측용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해에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 제조 및 연구개발센터를 조성하고 평택시와 공조해 제조, 개조, 수리 등 자동차 전후방산업을 유치한다. 대구·경북에는 수성의료지구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광양만권에는 이 지역에서 대량 발생하는 고순도 탄소를 고부가 가치 화학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단지를 구축한다. 이밖에 충북 오송 바이오밸리 구축, 동해안권 특수 알루미늄 합금 가공 클러스터 조성, 부산진해 글로벌 첨단 물류단지 조성 등이다. /세종=최신웅 기자